

##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

윤 금 자

**주제분류** 서양철학: 존재론

**주요어** 코기토, 주체, 자기의식, 현존재, 개시성

**요약문**

데카르트는 인간을 ‘주체’로 해석하면서 형이상학적 전제를 마련한다. 인간은 무엇이 ‘확실한 것’, ‘참된 것’,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모든 표준척도로서 자신을 스스로 근거 짓는다. ‘주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유하면서 표상하는 존재자 인간의 탁월한 특징이 되었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탁월한 주체의 우위는 진리의 절대 부동적 근거에 대한 인간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사물들과 존재자 전체에 대한 의식은 모든 확실성의 부동의 근거로서 인간주체의 자기의식으로 환원된다. 주체성의 형이상학은 *subiectum*을 문제 삼는데, *subiectum*에는 자신을 표상하는 작용이 속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은 주체성의 본질적인 자기의식이다. 자기의식은 주체성 자체의 본질적 핵심이다.

‘주체’에로 예비적인 방향전환을 수행하였던 데카르트는 주체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체의 존재를 고대와 중세철학이 형성해 놓은 존재개념과 이 개념에 속하는 범주들을 실마리로 삼아 해석하게 된다. 데카르트는 “*cogito sum*”으로 철학에 새롭고 확실한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존재론적으로 철저히 생각했다면 주체의 존재구성들의 존재론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데카르트는 존재론적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아예 감지조차하지 못했다. 데카르트는 존재일반에 관한 물음과 ‘자아’의 존재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에게는 진리의 확실성과 진리의 절대적인 정초가 중요한 문제였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주체’는 데카르트가 단지 그 자신이 근거지운 것을 극복함으로써만, 그리고 근대와 동시에 서양 형이상학을 극복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여기서 극복은 존재의 진리에 관한 질문을 근원적으로

묻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진리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을 현존재를 통하여 수행한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기의식이나 혹은 인식된 객관의 상대방인 인식하는 주관으로 고찰하지 않고, ‘현존재’와 ‘실존’으로 현상학적으로 바라본다.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에서 ‘있음’은 인간의 ‘있음’인 실존을 지칭한다. 그리고 ‘현’(Da)은 개시성을 의미한다, 즉 존재일반의 개시성과 본질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인간의 실존론적 존재의 개시성이라는 존재론적 의미를 뜻한다. 실존론적으로 열려 있는 존재일반의 개시성 속에서 존재자 전체는 개방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은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을 근거로 인간의 본질을 존재에 대한 관계로부터 그리고 오직 이러한 관계로부터만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 1. 머리말

하이데거에 의하면 데카르트와 함께 시작되는 근세철학은 전수된 존재론을 넘겨받고 있다. 데카르트는 ‘주체’에로의 예비적인 방향으로 전환했지만 주체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체의 존재를 고대와 중세철학이 형성해 놓은 존재 개념과 이 개념에 속하는 범주들을 실마리로 삼아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1)</sup>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중세를 거쳐 근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특정한 존재영역들, 즉 데카르트의 “나는 사유한다”, 주체, 자아, 이성, 정신, 인격 등이 강조되는 것에 주목한다.<sup>2)</sup> ‘주체’에 대한 존재와 그 존재의 구조가 근원적으로 묻어지지 않은 채, 근세의 주체성의 고유한 본질은 모든 것에 근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침투해 들어간다. 즉 주체에 대한 우위부여와 강조는 주체와 객체가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으로 구별된다. 고대철학에서부터 전승되어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존재물음의 소홀에 기인하여 존재일반은 ‘눈앞에 있음’ 또는 ‘현전성’으로 파악된다. 존재는 특정한 시간 양태, 즉 ‘현재’와 연관되어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형이상학을 전승한 데카르트는 주관주의 철학의 기초를 마련한다.

하이데거는 근대의 인간유형과 세계이해를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데카르트와 그 이후의 형이상학에서 인간의 ‘자아’는 탁월한 방식으로 ‘주체’가 된다.<sup>3)</sup> 인간이 본래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모든 존재자의 존재방식과 진리 방식을 근거지우는 그러한 존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처럼

1) M.Heidegger, Die Grundprobleme der Phänomenologie, GA.24, 1975, S.173~175  
참조

2) M.Heidegger, Sein und Zeit, GA. 2, 1979, S.22 참조

3) M Heidegger, Nietzsche ; der europäisch Nihilismus, GA.48, 1986, S.181 참조

근거를 형성하고 또 근거를 부여하는 확실한 것은 데카르트의 cogito이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살펴보기에 앞서 ‘cogito’가 무엇인지 그것의 특성을 살펴본다. 2장 ‘데카르트의 코기토’에서는 데카르트의 주요 저서를 바탕으로 ‘코기토’를 데카르트가 의도한 사실 그대로 논의한다. 데카르트 철학에서 코기토 명제가 어떻게 정립되었으며 그 명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3장 ‘코기토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의 1절 ‘표상적 사유와 코기토의 주체’에서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근대의 주관성의 형이상학이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우선 전통형이상학과 데카르트의 철학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표상적 사유에서 비롯되는 근세의 탁월한 주체의 면모를 살펴본다. 2절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와 진리’에서는 표상적 사유방식의 특성과 그것이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을 하이데거의 존재사유를 통해서 살펴본다. 우선 전통형이상학에서 존재물음을 소홀히 하게 된 이유를 제시한다. 하이데거는 표상적 사유방식으로는 존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의 특유의 존재사유를 통해서 비로소 존재와 인간의 관계가 열린다는 존재중심의 진리관을 제시한다.

## 2.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

데카르트의 철학의 목표는 명석 판명한 참된 인식의 기반 위에서 확고한 학문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정신과 신의 인식에 이르게 해주는 근거들이야말로 인간 정신이 알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증적인 것이다. 오직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찰>에서 의도했던 것이다”<sup>4)</sup> 그렇다면 명석 판명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하고, 또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데카르트는 “명석하고 판명한 지각(perceptio clara

4) R. Descartes 『성찰, 자연의 빛의 의한 진리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1. 33쪽

et distincta)”이라고 말한다. 데카르트적 형이상학은 인식의 가능성의 조건을 탐구하는 데 있고, 이 조건을 위해 바로 코기토 명제가 정립된다. 코기토 명제는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 ; 약칭, 성찰』에서 그 명제의 정립 과정과 의미가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코기토명제가 인식의 가능조건이 되는 이유는 코기토 명제로부터 대상적 인식의 참과 거짓에 대한 판별기준이 되는 일반규칙(eine allgemeine Regel)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내가 참으로 명석하고 판명하게 파악한 모든 것은 참된 것이다.”<sup>5)</sup> 데카르트는 무엇이 ‘명석’하고 ‘판명’한 것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집중하고 있는 정신에 현존하며 들어난 지각을 명석한 지각이라 부른다. 그리고 나는 명석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과 잘 구별되어 단지 명석한 것만을 담고 있는 지각을 판명한 지각이라 부른다.”<sup>6)</sup> 본질 직관을 통한 ‘명석하고 판명한 지각’에서 표상은 그 내용에 있어서 올바르게 파악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상들과 뒤섞이지 않고 그 자체의 동일성에서만 보이게 된다. 또한 코기토 명제가 인식 가능성의 조건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것에 의해 신의 현존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사유하는 정신의 현존에서 신의 현존이 인식된다.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주체가 먼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인식하는 주체의 자기 인식 속에 이미 신에 대한 인식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정신의 현존은 의심의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인식되듯이 신의 현존은 정신의 자기인식에서 직관적으로 통찰되는 것이다.

제일원리를 발견하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의심(회의)(methodie scepsis)’은 형이상학의 방법에 있어서 ‘분석(Analysis)’에 해당한다.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불확실한 것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명석 판명한 참된 인식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모든 지식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데카르트는 <여섯 성찰의 요약>에

5) 같은 책, 57쪽

6) R. Descartes 『철학의 원리』 원석영 옮김, 서울; 아카넷, 2002.

서 ‘의심의 유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심의 유용성은 모든 선입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정신을 감각으로부터 떼어 놓는데 가장 쉬운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의심은 우리가 마침내 참된 것으로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해 준다”<sup>7)</sup>

인간은 감각을 통해 물질적인 사물의 지식을 얻고, 오성을 통해 비물질적인 지식을 획득한다. 데카르트에 있어 진리는 관념과 실재가 일치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감각에 의해 나에게 나타난 상이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과의 일치여부이다. 데카르트의 의심의 영역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여 수학적 대상에 이른다. 데카르트는 감각적 인식에 대한 의심의 근거로 ‘감각의 오류’와 ‘꿈의 가설’을 제시한다. ‘감각의 오류(기만성)’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멀리서 둥글게 보이던 탑이 가까이 가 보니 사각형이었던 일”<sup>8)</sup> 과 같은 감각적 판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의 근거가 된다. ‘꿈의 가설’은 나의 신체에 대한 현존과 관련된 가설이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마치 현실인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꿈의 가설’은 깨어있을 때와 잠자는 동안에 어떤 차이점을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신체의 현존에 대한 지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오성적 인식에 대한 의심의 근거로 ‘악마의 가설’을 제시한다. ‘수학적 대상들은 오성에 의해 인식되기 때문에 그 관념과 상호 관계에 관한 인식은 거의 확실성을 보증할 만하다. 그러나 ‘악마의 가설’은 악마가 수학적 대상의 실재성을 허구로 만들 수 있고 또 그 상호관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잘못된 것으로 조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극단적인 경우가 물질적인 단순 본성의 실재성과 이것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의심이다. 이런 물질적인 것의 실재성이 의심되면 오직 의심하는 정신, 즉 사유하는 자아의 실재성만 남는다. 정신적인 단순 본성의 실재성은 허구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코기토 명제의 진리성이다. 의심하는 주체는 자신이 인

7) 데카르트, 『성찰』, 28쪽.

8) 같은 책, 107쪽.

식하는 모든 대상들이 참된 실재가 아니라 허구라는 것을 깨닫지만 여전히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의심을 수행하는 주체가 현존한다는 것이다. “아주 유능하고 교활한 기만자가 집요하게 나를 항상 속이고 있다고 치자. 자 이제, 그가 나를 속인다면, 내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sup>9)</sup> 이와 같이 모든 지식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은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대상적 인식은 오류와 착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고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주체로 물음의 방향을 돌린 후 『성찰2』에서 나의 존재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이끌어 낸다. 첫째, 의심의 대상은 그것이 착각과 꿈 그리고 악마의 기만 결과로 모두 거짓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의심을 수행하는 주체가 현존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심하는 자아의 본질은 곧 사유라는 것이다. 즉 나의 존재는 사유작용 자체로서만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세심히 고찰해 본 결과,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ego sum, ego existo)는 명제는 내가 이것을 발언할 때마다 혹은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sup>10)</sup> 데카르트가 발견한 ‘나의 존재’란 순수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이 정신을 ‘순수한 지성(오성) (intellectus purus)’이라고 말한다. 오성이란 곧 ‘사유하는 능력’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는 곧 ‘사유하는 것’이다. 사유가 정신의 본질이 된다.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얼마 동안? 내가 사유하는 동안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유하기를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나는 정확히 말해 단지 하나의 ‘사유하는 것(res cogitare)’”<sup>11)</sup> 이다. 나의 존재가 사유를 통해서 확립된다는 것은 ‘자기에 의해서(per se)’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기에 의한 존재’를 “실체(substance/ la. substantia)”라고 부

9) 같은 책, 43쪽.

10) 데카르트, 『성찰』, 43~44쪽.

11) 데카르트, 『성찰』, 46쪽.

른다. “실체란 현존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외의 어떤 존재도 요구하지 않는것”<sup>12)</sup> 이다. 실체는 ‘자기원인(causa sui)’의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방법적 의심(회의)의 과정’을 통해 형이상학의 제1원리 “cogito ergo sum”를 정립한다.<sup>13)</sup>

우리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의 여러 특징들을 그의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 더욱 상세하게 살필 수 있다. 『규칙들』에서 데카르트는 방법의 원리를 ‘분석’과 ‘종합’으로 구분한다. ‘분석’은 ‘문제’ 또는 ‘앞에 놓여 있는 것’(la. problema; gr. problema = das Vorgelegte)을 다룬다. 문제는 ‘완전히 이해된 문제’와 ‘불완전하게 이해된 문제’로 구별된다. 우선 완전한 문제를 찾아낸 다음,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단순한 문제로 분할한다. 단순한 문제에는 미지(未知)와 기지(既知)가 내포하고 있는데, 이 두 요소 간의 관계를 규정해야 한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분석과정을 ‘귀납’이라고 한다. 또 다른 방법의 원리인 종합에는 ‘직관’과 ‘연역’이 있다. 직관은

12)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1부, 51』

13) ‘cogito ergo sum’ (Je pense, donc je suis/ I think, therefore I am/ Ich denke, also bin ich)이라고 하는 정식화에서, ‘ergo’라는 말은 마치 저 정식화가 추론(Schluß)의 산물인 것 같은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 정식화가 Descartes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서설』(Discours de la Methode)의 라틴어 과정에서 비롯된다. ‘제일 성찰’(Erste Meditation)에는 ‘ergo’라는 말이 없다. 사실 Descartes의 사유과정(Gedankengang)은 『방법서설』보다 『성찰』에서 정확하게 드러난다. 『성찰』에서, ‘회의 (즉 사유작용)의 수행과정에서 사유하는 자아의 존재가 드러난다’(daß im Zweifel als einem Denken der Existenz des Ich als eines denkenden Etwas sichtbar wird). 즉 우리는 사유하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직관한다 (Denkend schauen wir uns zugleich als existierend). 따라서 정확한 표현양식은 (나는 사유하면서 존재한다)(*cogitans sum*)이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방법서설』(IV, 3)과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Regeln zur Leitung des Geistes, Regel III)에서 Descartes는 스스로 저 문제와 관련해서 ‘직관’(Intuition)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직관은 “다양하게 변하는 감각의 증언이 아니고, 또 감각적 직관의 혼탁한 상(像)에 바탕을 둔 기만적 판단이 아니라, 인식된 것에 대한 … 순수하고 조심성 있는 정신이 모든 의심을 넘어서서 파악하는 작용, 즉 이성의 빛에서만 생겨나는 파악작용”(이다. 예로서 그는 ‘삼각형은 세 변에 의해 제한된다’ 등을 들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Geist)을 이렇게 ‘단순한 것’(Einfaches)으로 향하게 하기를 싫어한다. J.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S.83.

모든 진리를 끌어낼 수 있는 제일원리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가장 단순한 것’<sup>14)</sup> 으로서 이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끌어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직관에는 ‘감성적 직관’과 ‘지적(오성적)직관’이 고려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제일원리를 직관하는 우리의 능력을 이성이라고 말한다. 직관적 지식은 곧 ‘이성의 빛’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연역’은 ‘확실하게 알려진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이해 또는 단순한 본질에서 복잡한 본질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역이란 ‘직관된 제일원리에서 다른 진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cogito 사상의 특징으로 ‘직관’, ‘수학적-기하학적 성격’, ‘기하학적-분석적 인식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cogito sum”은 감각적 직관이 아니라, 이성의 빛에서 생겨나는 직관작용에 의해서 명증적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직관은 오늘날 ‘본질직관(Wesensschau)’에 상응한다. 둘째, 코기토는 그의 사유체계가 수학적-기하학적이다. 데카르트는 수학적 인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다음의 표현으로 알 수 있다. “수학적 증명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명증성을 가지고, 의심할 수 없는 저 공통개념들로부터 연역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sup>15)</sup> 셋째, 코기토의 특징으로 기하

14) ‘단순한 개념(einfacher Begriff)’은 어떤 개념을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분석적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저 개념의 구성성분 혹은 특징(Bestandteile bzw. Merkmale)을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단순한 개념들’은 분석적 정의들의 사슬을 거쳐서(über Ketten analytischer Definitionen) 도달되는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은, 학문적인 용어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시원에서(am Anfang eines synthetischen Aufbaus wissenschaftlicher Terminologien) 보면, ‘그 자체 정의되지 않는 요소들(selbst undefinierte Elemente)’이다. 계층별로(hierarchisch) 질서지워진 개념체계를 고려한다면, 정의되지 않는 요소들은 동시에 ‘가장 일반적인 개념들’(die allgemeinsten Begriffe)로 파악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예컨대, Hobbes의 물체의 개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Descartes에게서 ‘사유’(Denken/cogitatio), ‘존재’(Existenz/existentia), ‘확실성’(Gewißheit/certitudo)을 들 수 있다. Descartes에 의하면, 이러한 개념들은 선행하는 분석 없이도(auch ohne vorausgehende Analyse) 명료하다(철학의 원리, I, 10). [Enzyklopädie. Philosophie u. Wissenschaftstheorie, hrg.v.J. Mittelstraß, Bd.1, Stichwort ‘Begriff, einfacher’참조. 여기에 아울러 Locke의 ‘simple ideas’도.]

학적-분석적 인식방법을 들 수 있다. 직관과 연역을 통해 가장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바로 기하학의 증명방법이다. “먼저 우리는 복잡하고 불명료한 명제를 단계적으로 보다 단순한 명제에 환원시키고, 그 다음 가장 단순한 명제들의 직관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이외의 명제들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sup>16)</sup> 여기에서 우리는 기하학의 방법적 절차가 데카르트에게 미친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cogito에 깃들여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코기토 명제가 철학의 제1원리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즉 그것의 정립에 어떠한 것도 전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두 가지가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코기토 명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개념인 ‘생각’과 ‘존재’의 의미가 먼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일반명제가 그것에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의심’, ‘사유’, ‘현존’과 같은 것은 극히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자기 경험이나 의식 혹은 내적 증언”<sup>17)</sup> 이다. 의심과 사유는 정신에 속하는 단순 본성이기 때문에 정신 혹은 자연의 빛에 의해 그 의미가 자체적으로 알려지고 직관되는 것이다. 또한 코기토 명제에서 주목할 점은 존재의 순서에서 보면 일반명제가 개별명제보다 앞설 수 있지만 인식의 순서에서는 개별명제가 먼저 인식된다는 것이다. 코기토 명제가 명시적으로 일반명제에 앞선다는 것은 코기토와 신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즉 존재의 순서에서는 신의 현존이 정신의 현존보다 앞서지만 인식의 순서에서는 정신의 현존이 신의 현존보다 먼저 인식되기 때문에 코기토 명제가 철학의 제1원리로 정립된다.

데카르트는 “사물의 인식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것, 즉 인식하는 우리 자신과 인식되는 사물자체가 고찰되어야 한다”<sup>18)</sup>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이 어떤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오성에 의해서이다. 코기토 명제를 최초

15)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제2부 64.

16) 데카르트,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5부 참조

17) 데카르트, 『진리탐구』, 159쪽.

18) 데카르트, 『규칙들』, 75쪽

의 인식으로 설정한 이유는 보편타당한 인식이 성립되기 위해서 우선 정신이 현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데카르트는 의심주체의 현존에서 의심 주체의 본질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 약칭; 진리탐구』에서 사유(cogitatio)를 바로 의심하는 주체의 본질로 보았다. “의심한다는 것이 사유한다는 것의 양태(modus)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사실 내가 전혀 사유하지 않는다면, 내가 의심하고 있는지, 내가 현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현존하고 있고, 내가 현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내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의심(회의)하며 사유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9)</sup> 나의 본질이 곧 ‘사유하는 것’으로 파악한 후 데카르트는 다시 ‘사유하는 것’을 “의심하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부정하며,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sup>20)</sup>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사유는 정신의 본질적 속성이며 나머지 것은 그 사유의 양태일 뿐이다.

사유만이 현존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다, 즉 내가 사유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하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트 주장 속에 양태와 속성 그리고 실체의 도식이 내재해 있다. 여기서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 자아의 본질은 바로 사유인데, 자아의 존재 확인과 그 본질을 구분함으로써 데카르트는 전통적으로 행해져온 존재와 본질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통형이상학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존재의 문제와 그 있는 것이 ‘무엇으로 있는가’라는 본질의 문제를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을 데카르트는 자아의 현존과 본질에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이러한 도식을 통해 ‘인간의 정신의 본성’과 ‘물체의 본성’ 그리고 ‘신의 본성’을 살펴볼 수 있다.

데카르트는 관념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관념 가운데 어떤 것은 본유적(innatae)이고 어떤 것은 외래적(adventitiae)이며, 다른 나머지는 내 자신이 만들어 낸(factae)것으로 생각된다.”<sup>21)</sup> 본유관념은 명석하고 판명

19) 데카르트, 『진리탐구』, 154쪽

20) 데카르트, 『성찰』, 49쪽

하며 따라서 참된 것이다. 이 관념에는 무한한 실체인 신의 관념과 유한한 실체의 관념 ‘res cogitans’와 ‘res existensa’이 여기에 속한다. 본유관념은 경험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정신에 갖추어져 있는 관념 또는 표상을 말한다. 데카르트는 ‘단순한 개념들’과 관련해서 ‘본유관념’을 “그 자체 명료한 개념”<sup>22)</sup> 이라고 정의한다. 데카르트는 관념에 대해 “내 생각들 가운데서 흡사 사물의 상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만이 본래적인 관념이라고 명명될 수 있으며, 가령 내가 인간, 키마이라, 하늘, 천사, 신과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상이 그것이다”<sup>23)</sup> 이라고 말한다. 데카르트는 관념이 외부 사물과 유사하다는 근거를 밝힌다. 그는 그 첫째 이유를 ‘자연의 빛’으로 보았다. “자연의 빛에 의해 나에게 명시되는 것들, 예컨대 내가 의심하는 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의심될 수 없다”<sup>24)</sup>

또한 데카르트는 우리 안에 있는 관념이 외부에 현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념들이 갖고 있는 ‘표상적실재성’의 정도로 측정한다.<sup>25)</sup> “나에게 실체를 나타내고 있는 관념은 단지 양태 혹은 우연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관념보다 더 큰 어떤 것이고 이른바 더 많은 표상적 실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sup>26)</sup> 예컨대 양태보다 실체가 더 많은 실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표상적 실재성을 정신과 물질적 사물에도 적용시켜 설명한다. “물질적 사물(물체)의 관념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것들, 즉 연장, 형태, 위치, 운동은 내가 오직 사유하는 것인 한 내 안에 형상적으로 내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껏해야 한 실체의 양태

21) 데카르트, 『성찰』, 61쪽.

22)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1부, 10』

23) 데카르트 『성찰』, 60쪽.

24) 데카르트, 같은 책, 62쪽

25) 데카르트는 <제 2반론에 대한 답변>의 부록에서 표상적 실재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관념의 표상적 실재성이란 그것이 관념 안에 있는 한에서 관념에 의해 표현된 것의 실재성이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표상적 완전성이나 표상적 기예성 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6) 데카르트, 『성찰』, 63쪽

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실체이므로 그것(물체)은 우월적으로 내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27)</sup> 정신이 물질적 사물에 근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에 대해 데카르트는 밀랍 한 조각을 고찰 대상으로 설명한다. “밀랍을 불 가까이로 가져갔더니 맛, 향기, 빛 형체는 사라지고 액체로 되었으며 거의 잡을 수도 없었다. … 그렇다면 밀랍에 있어 그토록 판명하게 인식되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연장성 및 가변성뿐이다”<sup>28)</sup> 여기서 물체의 본성이 감각적 성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밀랍이나 그 밖의 다른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들이 내 정신의 본성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물체도 본래 감각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오직 오성에 의해서만 지각된다는 것을 안다. 즉 물체는 만지거나 보아서가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지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정신보다 더 쉽게 명증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sup>29)</sup> 밀랍의 예를 통해서 물체는 감각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오직 정신적 능력인 오성에 의해서 인식된다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은 물체보다 먼저 더 쉽게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유와 연장은 모두 다 실체이지만, 사유 실체 안에는 연장 실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실제성이 있기 때문에 물체의 실제성을 정신이 우월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은 자신의 원인이자 모든 물질적인 것의 관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3. 코기토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

#### 1) 표상적 사유와 코기토의 주체

데카르트는 그의 철학적 목표인 명석 판명한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 위

---

27) 같은 책, 68쪽

28) 같은 책, 50~52쪽 참조.

29) 같은 책, 55쪽.

하여 정신을 기반으로 가능한 모든 것의 인식에 도달하는 참된 방법을 찾는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cogito ergo sum: 약칭 ‘코기토’)”를 확실한 제일원리로 정립하게 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데카르트의 새로운 토대는 전승된 고대와 중세의 존재론적 토대에서 수행되었다. 즉 데카르트는 “cogito sum”의 존재론적 기초와 ‘res cogitans’ 문제성에서의 중세 존재론의 전수(SZ 24)이다. 데카르트는 “cogito sum”으로 철학에 새로운 확실한 토대를 제공하기를 요구한다. “데카르트는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시작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내버려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res cogitans’의 존재방식, 더 정확히 말해서 “나는 존재한다”의 존재의미이다.”(SZ 24) 하이데거가 보기에 “cogito sum”의 존재론적 기초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명확하게 주제화되지 못했다. 즉 자기의식적인 자아(Ich)에 내재한 철학의 근본적인 시도는 ‘주체’를 존재일반의 의미에 관한 물음을 실마리로 존재론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식을 계속적으로 주제화하는 데 머물렀다. 왜냐하면 코기토의 존재론적 기초는 단지 존재론적인 현존재의 분석의 빛에서만 들어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진리의 확실성과 진리의 절대적인 정초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존재물음을 필수적인 물음으로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일반에 관한 물음과 자신의 자아(Ich)존재에 관한 물음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데카르트는 “코기토”를 절대적으로 ‘확신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코기토”의 존재의미에 대한 물음에서 면제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코기토”는 곧 자기의식으로서 직관의 산물이다. 확실한 직관적인 오성의 통찰로 자아성(Ichheit)의 존재자의 존재가 확실한 것으로 인식됐다. 즉 자아(Ich)의 존재의미에 관한 물음은 전혀 물음으로 제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아성의 존재자의 존재는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다.<sup>30)</sup> 데카르

30) Friedrich-Wilhelm von Hermann, <Hermeneutische Phänomenologie des Daseins>, Eine Erläuterung von "Sein und Zein" Band 1.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251쪽.

트에게 있어 ‘자기의식’은 철학의 토대이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는 데카르트 이후의 이성적 형이상학과 초월철학의 기초가 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칸트의 초월적 통각, 피히테의 절대적 자아, ego-cogito, 자기의식, 주체의 경계가 현존재의 탈자적인 실존구성들의 방향으로 뛰어넘지 못한다.

데카르트는 중세 스콜라철학의 방식에 따라 무한 실체(substantia infinita)와 유한 실체(substantia finita)를 분류하고 있다. 무한실체의 신은 창조자이다. 유한 실체의 영역은 피조물이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사유하는 사물(res cogitans)’와 ‘연장된 사물(res extensa)’로 나누고 있다. ‘사유하는 사물’은 존재론적으로 ‘엔스(ens, 존재자)’로 규정되는데, 엔스의 존재의미는 중세 존재론에서 창조된 존재자를 의미한다.(SZ 24) 이러한 ‘사유하는 사물’과 ‘연장된 사물’을 존재양식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본질’로 구별했다. 즉 ‘사유(cogitatio)’와 ‘연장(extensio)’으로 구별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만은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자아(Ich) 존재를 existentia, 즉 “현존함(Wirklichsein)”, “눈앞에 있음(Vorhandensein)”으로 파악했다. 그는 자신을 묻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초월한 사물적인 물질세계를 existentia로 물었다.<sup>31)</sup> 이렇게 ‘사유’와 ‘연장’은 실체화된다. 이런 실체화의 과정에서는 존재방식을 문제 삼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실체성이 유일한 존재방식으로 이해되는 한 다양한 존재의 방식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성이야말로 시간 안에서의 생성과 변화이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의심)’은 바로 그 생성 변화하는 양태들의 제거과정이다. 즉 존재를 시간으로부터 떼어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일련의 과정을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존재자를 이루는 ‘무엇’에 대해 사유하면서 존재의 동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다. 존재가 이렇게 ‘어떤 무엇’으로 파악됨으로서, 스스로 개시하여 현전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동사적

31) Friedrich-Wilhelm von Hermann, <Hermeneutische Phänomenologie des Daseins>, Eine Erläuterung von "Sein und Zein" Band 1.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249쪽.

성격은 탈락되고 참된 존재라고 생각되는 어떤 무엇을 지칭하는 명사로서의 존재만 남게 된다. 이제 존재는 마치 눈앞에 있는 어떤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존재이해를 ‘눈앞에 있는 것(das Vorhandene)’의 존재론이라고 명명한다. 여기에서 존재는 존재자와 마찬가지로 대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존재는 ‘현재’라는 시간 지평 위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기 동일성이 된다. 이러한 존재는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남는 존재자의 본질이다. 이러한 존재자의 본질은 실체(ousia, substance)로 특징 짓을 수 있는데, 즉 존재를 “지속적인 현존상”으로 보는 존재이해가 담겨있다.<sup>32)</sup>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의심)’을 통해 발견한 것은 단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의심하는 나의 사유하는 자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가 별개의 사태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존재는 사유 활동 자체로서만 확인되는 것이다. 데카르트에게 있어 ‘사유하는 자(res cogitans)’로서 자아는 자신의 내적 본질로부터 자기의 존재가 자체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주체가 된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사유함(cogitare)”은 언제나 “나는 내가 사유함을 사유한다(cogito me cogitare)”이다. 개개의 표상함은 모두 “나는 표상한다”이고 개개의 판단함은 모두 “나는 판단한다”이다. 자아란 “사유행위들(cogitationes)”의 어떤 것(res)이다. 이때 ‘res’는 ‘어떤 것’이 ‘이해되고 있음’을 뜻한다. 전통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표상들은 자아들의 규정들, 말하자면 자아의 술어들이다. 술어들을 갖고 있는 것을 문법과 일반논리학에서는 주어라고 부른다. 자아란 ‘사유하는 사물(res cogitans)’로서 문법적, 논리학적 의미에서 술어들을 갖고 있는 주어이다. 여기서 주어(subjectum)는 형식적, 서술적 범주로 간주된다. 서술적이란 발언 일반에 대한 발언 내용의 형식적 구조를 뜻한다. 어떤 발언에서든지 발언의 지

32) M. Heidegger, Nachwort zu “Was ist Metaphysik”, in ; Wegmarken, GA. 9, Frankfurt a. M. 1976, S., 376참조

시체는 주어, 말하자면 발언의 근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발언된 ‘무엇임’은 술어이다. 자아로서의 주어가 어떻게 자신의 술어들을, 즉 표상들을 갖고 있는가?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 말은 “자신이 사유함을 사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유하는 자의 ‘사유하면서 있음’이 사유함 속에 함께 사유되어 있다. 주어로서 자아란 자신의 술어들을 알면서 갖고 있는 자이다. “나는 사유하면서 이 사유함이 나의 사유함이라는 것을 안다” 자기의 술어들을 가짐으로 주어는 탁월한 주어가 된다. 자이는 자기의식이라는 의미의 주어이다. 이러한 주어는 자신의 술어들과 구별되어 있다. 이러한 ‘사유하는 사물(res cogitans)’은 술어들의 주어이자, 객체들의 주어이다. ‘주체성’, ‘자아성’을 뜻하는 주체 개념은 존재론적으로 ‘주어(휘포케이메논)’라는 형식적, 서술적 범주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GP 178~179 참조)

데카르트는 “정신이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정신은 자신에게로 향하여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관념을 고찰하는 반면에 정신이 어떤 것을 상상할 때 정신은 물체로 향하여 자신에 의해 이해된 관념이나 감각에 의해 지각된 관념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물체 속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sup>33)</sup> 하이데거에 의하면 데카르트적 표상적 사유방식에서 사물들과 존재자 전체에 대한 모든 인식은 확실성의 부동의 기초로서 인간주체의 자기의식으로 환원된다. “사물과 대상에 대한 의식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것의 근거에 있어서 자기의식이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식으로서만 대상들에 대한 의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상작용에 대해서는 인간의 자기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항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즉 ‘subiectum’가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NN 194쪽 참조)

‘subjectum’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휘포케이메논(ὑποκειμενον)”의 번역어로서, 근거로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모으는, 즉 앞에-놓는 것을 말한다.<sup>34)</sup> 하이데거에 의하면 주관개념의 이러한 형이상학적 의미는 인간

33) 데카르트, 『데카르트』, 104쪽.

34) M. Heidegger, “Die Zeit des Weltbildes”, in Holzwege, GA.5, Frankfurt a. M.

이나 자아에게만 관련되어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ubiectum’은 그것의 본질개념에 따르면 하나의 탁월한 의미로 그때그때 이미 현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근거에 놓여 있고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이데거는 ‘subiectum’이란 본질개념으로부터 ‘자아’ 그리고 ‘자아성’이란 개념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 못 지않게 돌, 식물, 동물도 주체이다.(NN 181 참조)

데카르트 이래 형이상학에서 인간의 ‘자아’는 우월한 방식으로 ‘주체’가 된다. 인간이 본래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모든 존재자를 존재자의 존재방식과 진리 방식으로 근거지우는 그러한 존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존재자 자체의 관련 중심이 되는 데, 이것은 존재자 전체의 파악이 변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근대의 본질이 무엇이며, 데카르트의 주관주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주관이 됨으로써 인간 일반의 본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데카르트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아 탁월한 주체의 우위는 진리의 절대 부동적 근거에 대한 인간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ZW 106)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적 과제는 스스로 확실히 하는 자기규정으로서 이러한 근거는 그 자체로서 확실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존재자를 확실한 것으로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 즉 인간의 본질적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탁월한 주체가 필연적이게 된다. 인간이 탁월한 의미에서 주체가 될 경우 주체는 무엇에 대해서 근거에 놓여 있는 것인가? 하이데거는 이러한 탁월한 주체가 인간과 존재자 그리고 진리의 근거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이처럼 근거를 형성하고 또 근거를 부여하는 확실한 것은 바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이다. 이러한 표상적 사유는 앞에 세우는 것(표상행위), 즉 표상된 것에 관한 표상하는 관계이다. 표상행위란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자기 앞에 세우고, 이 세워진 것 자체를 안전하게

---

1977, S. 87.

세우는 행위이다. 표상행위는 ~에 대해 자신을 열어 놓음이 아니라, ~에 대한 포착과 개념 파악이다.(ZW 107~108 참조) 인간이 모든 사물의 척도가 됨으로써 존재자는 존재의 개시에 의해 자기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요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나타난다. 존재자는 더 이상 현전자가 아니라, 표상행위 속에서 마주 세워진 것, 즉 대상적인 것이 된다. 하이데거는 『니체와 니힐니즘에서』에서 ‘cogitare’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첫째, 하이데거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cogitatio와 cogitare를 perceptio와 percipere로서 파악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자기 자신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에게 가져온다는 것’에는 표상된 것이 일반적으로 앞에 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NN 191 참조)

둘째, cogitare는 본질상 회의(의심)하고, 검토하고 신중히 계산하는 표상이다. cogitare와 dubitare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은 표상작용이 그 자체에 있어서 ‘확보하는 것(Sichern)’, ‘확실히 하는 것(Sicherstellen)’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NN 217 참조)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것, 확실한 것 그리고 그것의 확보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NN 191 참조)

셋째, 하이데거가 데카르트의 cogito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자기의식과의 관련성이다. 데카르트의 ego cogito는 cogito me cogitare이다. 즉 ‘나는 생각(표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이다. cogitatio라는 개념에서는 표상작용이 표상된 것을 표상하는 자어로 가져 오며 이를 통해 표상하는 자는 표상된 것을 그때그때마다 세워놓고 구명한다. 그리고 표상하는 자는 표상된 것을 자신을 위해서 확정하고, 소유하며 확보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NN 192 참조) 표상하는 자이는 오히려 모든 ‘나는 표상한다’에서 훨씬 더 본질적으로 그리고 더 필연적으로 함께 표상되므로 표상된 것이 그것을 향해서, 그것으로 그리고 그것 앞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으로 표상된다.(NN 194 참조)

이상에서 특징지어진 표상작용(cogitatio)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

신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표상작용은 표상하는 인간이 자기 존재를 기준으로 수행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하이데거가 볼 때 이러한 진리관은 존재자가 스스로 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 놓고 그 틀 안에서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데카르트에게 있어 표상작용의 본질은 표상된 것을 자신에게 노정하는 것으로 그 중점을 옮겼다는 것이다. 그 경우 표상하는 인간은 무엇이 정립되고 존립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결정하게 된다.(NN 197 참조)

“cogito sum”명제는 cogito와 sum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명제는 나는 표상하는 자로서 존재한다는 것과 나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표상작용을 통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존재자는 표상되어 있음 안에 자신의 존재를 갖는다는 것과 표상된 것이 표상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노정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것이 근거하는 부동의 진리로서의 “cogito sum”은 표상의 완전한 본질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 표상의 본질인 “cogito sum”으로부터 존재의 본질과 진리의 본질 그리고 표상하는 자로서의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척도를 부여하는 방식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cogitare안에 me cogitare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상작용에는 표상하는 자에 대한 관계가 본질적으로 속하며 표상된 것의 모든 표상되어 있음은 표상하는 자에게로 모여지기 때문에 그 경우 자신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표상하는 자는 하나의 탁월한 의미의 주체이다.(NN 202 참조)

코기토가 모든 인식의 근거가 됨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의식에 명석 판명하게 주어지는 한 참 혹은 진리가 된다. 이렇게 사유 활동이 실체화됨에 따라 사유된 것까지도 사유주체의 한 파생적 속성으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주관의 일차적인 대상인 물질은 관념상의 표상적 실재성만을 지닌 것에 불과하고, 대상은 주관과 분리된 고정된 실체가 된다. 인간의 자아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인간 이외의 모든 사물이 주체에 대한 객체(대

상)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체는 더 이상 그 자신의 고유한 ‘있음’이 아니라 주체의 표상적 계산 행위 안에서 찾아지게 된다. 주관과 객관의 실체적 분리를 거쳐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로 나아간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res extensa*의미의 자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불, 물, 공기, 별, 하늘 및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판명하게 앎으로써 장인처럼 이 모든 것을 적절한 곳에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다.”<sup>35)</sup>

하이데거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단지 그 자신이 근거지운 것을 극복함으로써만 근대와 동시에 서양 형이상학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극복은 존재의 진리에 관한 질문을 근원적으로 묻는 것을 의미한다.(ZW 100 참조)

## 2)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와 진리

하이데거 보기에 데카르트의 인간과 세계에 관한 근본입장은 역사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형이상학에 의해 지탱되었으며 그의 새로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존재자란 무엇인가라는 동일한 질문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ZW.98 참조)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존재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언제나 존재자의 본질만을 탐구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전통형이상학은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와 존재의 동적인 성격을 망각하고 존재자의 본질을 파악하기 때문에 존재로 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있어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Sein des Seienden*)를 의미한다.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존재’라는 말로 표현한다. 따라서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드러날 때 거기에는 언제나 존재의 현전(*Anewsen*)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하게끔 보증해주는 동시에 그 존재자를 통해서만 즉 존재자를 “존재하게 함(*Seinlassen*)”<sup>36)</sup>으로써 자신을 드러낸

35) 데카르트 『방법서설』, 4부, 220쪽.

36) M. Heidegger, “Vom Wesen der Wahrheit”, in ; Wegmarken, GA.9, Frankfurt a

다. 존재와 존재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존재는 존재자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고, 존재자는 존재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sup>37)</sup> 하이데거는 이렇게 서로 구별되면서 동시에 의존적인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개시성(Offenheit)이라는 존재의 근본성질에 의해 설명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전통형이상학의 문제점은 존재자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파악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존재자가 ‘있는 무엇’임은 자명한 사실로 이것은 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sup>38)</sup>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존재자, 최고의 신적 존재자로서 이제 존재는 더 이상 존재자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다. 비은폐성과 은폐성으로 작용하는 동적인 근본성질을 지닌 존재의 성격은 없어지고 존재는 실체화되어 버린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전통형이상학에서의 존재망각은 진리의 문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존재와 진리에 관한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진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존재물음이 달라진다. 하이데거에게 있어 ‘진리’는 결코 인식론이나 또는 판단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즉 ‘스스로 드러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SZ 212)

데카르트에 있어 코기토는 확실한 그의 철학의 제1 원리이다. 진리는 주관의 자기 확실성의 명석 판명함에 의존해서만 드러난다. “자기 확실성의 앎”이란 일종의 ‘자기 스스로 아는 것(Sich-selbst-wissen)’이다.<sup>39)</sup> 즉 표상하는 자가 자신에 의해 표상된 것을 항상 그 자체로 확실성을 증명해 주는 앎이다. 즉 인간은 확실성의 진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모든 기준의 척도로서 그 자신을 내세운다. 하이데거가 볼 때 이러한 진리관은 존재자가 스스로 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 놓고 그 틀 안에서만 의미를

M. 1976, S.188.

37) M. Heidegger, "Nachwort zu Was ist Mataphysik", in Wegmarken, GA. 9, Frankfurt. M.1976, S.306.

38) 하이데거 ‘철학이란 무엇인가’ 최동희 옮김, 삼성출판사, 1986. 41쪽

39) M, Heidegger, Nietzches Wort ‘Gott ist tot’, 1944, 244쪽.

부여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진리관은 인간 이성의 확실성이 강조되면서 진리의 본질은 존재의 진리로부터 벗어난다.

하이데거는 표상적 사유방식으로는 존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의 특유의 사유방식인 존재사유를 통해 진리를 제시한다. 하이데거의 ‘존재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선 현존재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아야한다. 현존재는 그의 존재의 근거가 역사적이다. 여기서 의미된 역사성이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역사성이란 현존재 그 자체가 일어나는 ‘생기’의 존재구성틀을 의미한다.”(SZ 20) 즉 현존재는 그의 의미에 있어 고정되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운동구조에서 내보이는 것이다. 현존재의 첫 번째 존재규정은 “그 존재자에게 그 존재함에서 바로 이 존재함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존재적으로 뛰어나다.”(SZ 12) 두 번째 현존재의 규정은 “현존재가 그 존재에서 이 존재와 일종의 존재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속한다.”(SZ 12) 나의 존재에서 나의 존재함이 문제가 된다면 나는 나의 존재와 관계한다. 이러한 관계는 ‘자아’와 ‘자기의식’ 그리고 ‘자기반성’의 특징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존재(있음)에서 나의 존재자 자체가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관계한다. 여기서 존재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는 나의 존재가 ‘현실적 존재,’ ‘눈앞의 존재’의 고유성으로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존재관계로 ‘존재(있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존재의 세 번째 규정은 “현존재는 어떠한 방식과 명확성에서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 만일 내가 나의 존재와 염려의 방식에서 관계한다면, 나는 나의 존재에서 어떤 대상화로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로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다.<sup>40)</sup> 이 존재자에게 고유한 점은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자신의 존재에 의해서’ ‘그 자신에게’ 그의 존재가 “열어 밝혀져 있음(Erschlossenheit)” 이다. 현존재에게 ‘나의 존재함 자체’가 문제가 되어 나의 존재와 관계하고, 이해한다

40) Friedrech-Wilhelm von Hermann, Eine Erläuterung von “Sein und Zeit” Band, S. 249 참조.

는 것은 나에게 나의 존재가 ‘열려져 있음’을 뜻한다.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열려져 있음’은 자신에 몰입해서 있다는 것이 아니다. 즉 자신의 캡슐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있음’이다. ‘자기-밖에 있음’은 실존의 탈자적 특성을 말한다.(SZ 329 참조)

현존재의 근본적인 구성들은 세계-내-존재이다. 그러므로 현존재에 속하는 존재이해는 동일근원적으로 ‘세계’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한 이해와 세계 내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되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 관계된다. 하이데거는 근세의 고립된 주체와 대비되는 “열려있음”의 존재, 즉 ‘현존재’를 통해 근세적인 주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의 존재이해를 실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존재를 향한 사유가 이루어졌다면, 전향 이후에는 존재로부터 존재자를 향한 사유가 전개된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사유는 하나의 길, 즉 존재의 의미에 관한 물음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전통형이상에서 진리는 사물과 대상의 일치이든 인식과 의식내재적인 표상의 일치이든 항상 ‘올바름(Richtigkeit)’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발견된 해답을 다듬고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진리규정은 사물에 대해 어떤 설명은 하지만 그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단지 인간의 언표와 대상이 일치하면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 일치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언표가 사물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관계할 수 있는 조건을 “개시성(Offenheit)”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진술이 올바름(진리)으로 드러나는 것을 ‘태도의 열린 자세’에서 살필 수 있다. 열린 자세를 통해서만 진술의 올바름이 가능하다면, 올바름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근원적으로 적합한 진리의 본질로서 간주되어야 한다.(WW 185 참조) 존재는 자기 스스로를 열어 보이는 개시성을 가지고 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비은폐성(Unverborgenheit)을 존재의 의미이자 존재의 진리라고 규정한다.(WW 188 참조) 하이데거에 의하면 표상적 사유에서는 주관-객관일치의 진리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존

재가 스스로 열어 보이는 가능성은 배제된다.

하이데거는 존재사유를 통해서 비로소 존재와 인간과의 관계가 열린다고 주장한다. 이제 인간은 사유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의 개시 안에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이다. 존재는 스스로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을 요구하게 되며 이 요구에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 “존재사유”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라 탈존에 있다고 말한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인간은 그 스스로 존재하면서 존재의 개시에 응하여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 즉 현존재(Dasein)이다. 이러한 현존재는 탈자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이기에 존재의 개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존재와 인간의 관계는 데카르트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주관우위의 사유방식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 4. 결론

하이데거의 철학은 그의 근본개념들, 즉 존재, 진리, 세계 등에 관한 논의들을 문제 삼았으며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전통형이상학, 근대주관주의 철학, 현대기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특히 그의 중요한 철학적인 물음인 ‘존재물음’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우리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관주의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하이데거는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세밀하게 파헤치면서 인간이 모든 것에 근거로 자리매김하는 ‘주체’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이데거가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해석하면서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존재망각’을 들었다. 하이데거는 ‘데카르트의 표상적 사유와 코기토의 주체에 관하여’ 네 가지 관점에 맞추어 거론하였다. 네 가지 관점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존재자의 존재의 기투’, ‘존재자의 진리의 본질’, ‘인간이 존재자의 진리에 대해서 척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네 가지 관점은 하나의 구조적 통일성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것은 존재자에 대한 인간의 관계의 본질구조이다.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다. 따라

서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존재자의 존재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 이유는 ‘존재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존재자에 대한 인간의 관계’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자에 대한 관계’를 넘어서 ‘존재에 대한 관계’를 거의 사유하지 못한다. 이 결과 전통형이상학에서 진리는 존재의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는 전통형이상학에서의 존재망각은 전통형이상학에서 진리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존재와 진리에 관한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진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존재물음이 달라진다.

데카르트는 그의 철학적 목표인 명석 판명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를 ‘사유하는 자(ress cogitans)’에서 찾았다. 데카르트 철학에서 ‘사유하는 자’의 ‘자기 확실성’이 진리와 인식의 척도로 작용한다. 즉 인간의 주관성이 모든 존재자를 근거 짓는 실체가 된다. 이에 따라 존재자는 근거 짓는 ‘주관’과 근거 지워진 것인 ‘객관’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주관이 우월하게 강조되어지는 현상을 데카르트의 ‘코기토’ 정립과정에서 살펴보았다.

데카르트에 있어 코기토는 확실한 그의 철학의 제1원리이다. 진리는 주관의 자기 확실성의 명석 판명함에 의존해서만 드러난다. 인간은 진리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의 척도로서 그 자신을 내세운다. 하이데거가 볼 때 이러한 진리관은 존재자가 스스로 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 놓고 그 틀 안에서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진리관은 인간이성의 확실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진리의 본질은 존재의 진리로부터 벗어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진리는 존재와의 근원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 문제의 해명은 필연적으로 현존재의 존재방식의 연관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하이데거는 근세의 고립된 주체와 대비되는 “열려있음”의 존재, 즉 현존재를 통해 근세적인 주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존재를 이해하며 존재

와 관계하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은 근세의 ‘주체’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근세의 ‘주체’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근거지우려는 ‘소유와 지배’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근세의 ‘주체’와 ‘표상적 사유’로는 존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즉 주체를 중심으로 사유하는 표상적 사유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그의 특유의 존재사유를 통해서 비로소 존재와 인간의 관계가 열린다는 존재중심의 진리관을 제시한다. 우리는 하이데거의 존재사유를 통하여 표상적 사유방식이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강원대학교)

## 참고문헌

### I. Heidegger의 저술 (전집 순서로 나열)

1. Sein und Zeit, Tübingen ,1979, GA, 2. (SZ)
2. Kant und Problem der Metaphysik, 1973, GA, 3.
3. Die Zeit des Weltbildes, in ;Holzwege,1977, GA, 5. (ZW)
4. Nietzsches Wort ‘Gott ist tot’,1977, GA, 5. (NW)
5. Der Spruch des Anaximander, in; Holzwege, 1977, GA, 5.
6. Vom Wesen der Wahrheit, 1976, GA, 9. (WW)
7. Vom Wesen des Grundes, 1976, GA, 9 (WD)
8. Was ist Metaphysik? 1976, GA, 9. (WM)
8. Die Grndprobleme der Phänomenologie,1975, GA. 24. (GP)
10. Nietzsche; der europäische Nihilismus, 1986, GA. 48. (NN)
11. Metaphysik als Geschichte des Seins, 1961, (MG) Nietzsche II Neske

### II. 데카르트의 저술

1. 이현복 옮김, 「성찰, 자연의 빛의 의한 진리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문예출판사, 1997.
2. 이현복 옮김,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문예출판사, 2001.
3. 원석영 옮김, 철학의 원리 , 아카넷, 2002.

### III. 기타 저술

1. Friedrich-Wilhelm von Hermann, Hermeneutische Phänomenologie des Daseins ; Eine Erläuterung von “Sein und Zeit” Band 1

2. Friedrich-Wilhelm von Hermann, Subjekt und Dasein ;Interpretation zu Sein und Zeit”, 1985.
3. Friedeich-Wilhelm von Hermann, "Sein und Cogitationes“, in : Durchblicke Martin Heidegger zum 80 Gebrutstag, Frankfurt a. M.1970.
4. Hirschberger, Johanes, Geschichte der Philosophie, Freiburg, 1954.
5. Husserl, Edmund, Die Krisis der europäi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hrsg,v.E. Ströker, Hamburg, 1977.
6. Pöggeler, Otto, Der Denkweg Martin Heideggers, Pfullingen, 1983.
7. A, 케니, 데카르트의 철학 , 서광사, 1991.
8. M, 클라인, 수학의 확실성 ,민음사, 1990.
9. 이기상, 하이데거의 철학에의 안내, 서광사,
10. 이기상, 하이데거의 실존과 언어, 문예출판사, 1991.
11.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와 현상, 문예출판사, 1992.

하이데거 저서의 약호표

\* 본 논문에서 하이데거 저서의 인용은 처음에만 각주에서 서지사항을 밝히고, 그 이후부터는 본문에 약호와 원서의 쪽수만 표기한다.

\* 논문에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GP ;. Die Grundprobleme der Phänomenologie,1975, GA.24.

NN ; Nietzsche ;der europäische Nihilismus, 1986, GA.48.

SZ ; Sein und Zeit, Tübingen ,1979, GA,2.

WW ; Vom Wesen der Wahrheit, 1976, GA.9.

ZW ; Die Zeit des Weltbildes, in ;Holzwege,1977, GA, 5

## Heidegger Interpretation zum 'cogito' des Descartes

Yun Gum Ja

Descartes schafft mit der Auslegung der Menschen als Subjectum die metaphysische Voraussetzung. Der Mensch wird zu dem von ihm selbst gesetzten Grund und Maß für alle Gewißheit und Wahrheit. Subjekt zu sein, wird jetzt die Auszeichnung des Menschen als des denkend-vorstellenden Wesens. Der Vorrang eines ausgezeichneten, weil in wesentlicher Hinsicht Sub-jectum entspringt aus dem Anspruch des Menschen auf ein fundamentum absolutum inconussum veritatis. Alles Bewußtsein von den Dingen und dem Seienden im Ganzen wird auf das Selbstbewußtsein des menschlichen Subjekt als den unerschütterlichen Grund aller Gewißheit zurückgeführt. Die Metaphysik der Subjektivität handelt vom eigentlichen subiectum, weil zum subiectum das Sich-vorstellen gehört, ist die Metaphysik das eigentliche und höchste Selbstbewußtsein der Subjektivität. Das Selbstbewußtsein ist der Wesenskern der Subjektivität.

Descartes, bei dem sich auf verschiedenen Wegen schon vorbereitete Umwendung auf das Subjekt vollzog, stellt nicht nur nicht die Frage nach dem Sein des Subjekts, sondern er interpretiert sogar das Sein des Subjekts am Leitfaden des Seinsbegriffes und der ihm zugehörigen Kategorie, den die antike bzw, mittelalterliche Philosophie ausgebildet hat. Descartes beansprucht, der Philosophie mit dem "cogito sum" einen neuen und sicheren Boden beizustellen. Ein solcher Anspruch schließt, ontologisch radikal gesacht, die Forderung einer ontologischen Bestimmung der Seinsverfassung des Subjekts ein. Dieser Forderung kommt aber Descartes nicht nach, ja er vernimmt sie gar nicht erst.

Descartes ging es gar nicht um die Frage nach dem Sein überhaupt und Sein des eigenen Ich, sondern um die Sicherung, um die absolute Begründung der Wahrheit.

Von Heidegger 'Subjekt' Descartes ist nur überwindbar durch die Überwindung dessen, was er selbst begründet hat, durch die Überwindung der neuzeitlichen und d.h. zugleich der abendändischen Metaphysik. Überwindung bedeutet hier unsprüngliches Fragen der Frage nach dem Sinn.

Heidegger beansprucht, mit dem Dasein der philosophie einen neuen Bodern zu geben. Heidegger meint den Menschen nicht als Selbstbewußtsein, nicht als Subjekt im erkennenden Gegenüber der erkannten Objekte, sondern ihn als Da-sein und Existenz phänomenologisch. Vorläufig gesagt ; '-sein' im Begriff 'Dasein' nennt das Sein des Menschen, die Existenz. Das 'Da' hat die ontologische Bedeutung der Erschlossenheit, und zwar der Erschlossenheit des existenzialen Seins des Menschen im Wesenzusammenghng mit der Erschlossenheit von Sein-überhaupt. In der existenzial offengehaltenen Erschlossenheit von Sein-überhaupt ist das Seiende im Ganzen offenbar.

Heideggers Interpretation aum 'cogit' des Descartes auf dem Grunde der Frage nach der Wahrheit des Seins, das Wesen des Menschen aus seinen Bezug zum Sein und nur aus diesem zu bestimmen.

Key words: cogito, Subjekt, Dasein, Selbstbewüßtsein, Erschlossenheit

윤금자 e-mail: ykumja@hanmail.net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 / 윤금자

투 고 일	2011년 10월 24일
심 사 일	2011년 11월 01일
게재확정	2011년 11월 23일